

칸트 哲學의 梗概 그 係統的 考察(十二)

李相殷

第三章. 道德論과 宗教論

칸트의 道德論도 그의 知識論과 갓치 一種의 批判的 研究이다. 그의 問題는 道德이 엇더케 可能한가?

換言하면 道德 成立의 條件은 무엇인가이다. 그는 이 問題를 研究하되 먼저 當時에 流行하는 倫理學說을 批評함으로부터 着手하였다. 當時 流行하는 學說은 兩派로 歸納 할 수 잇스니 一은 實在論 或 經驗論派이오, 一은 理想論 或 唯理論派이다. 經驗論派는 快樂을 主張하여 道德의 目的을 사람으로 하여곰 慾望을 滿足하여써 快樂을 엇게 하는데 잇다하며 或은 功利說을 主張하여 最大多數의 人으로하여곰 最大多數의 幸福을 엇게 함에 道德의 目的을 두고 唯理論派는 完成說을 主張하여 各 個人本性의 發展을 完成식하는데에 道德의 目的을 置重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이들은 모다 直正한 道德學說이라 할 수 업다. 그들은 모다 道德의 標準을 自我 以外에 두었다. 그리하여 道德은 그 本身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오, 道德 本身 以外의 事物—快樂, 幸福, 個人의 完成—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 되었스니 이런 道德은 價値업다. 願컨대 快樂, 幸福이라함은 모다 感性의 要求에서 生하는 것인데 感性의 要求라는 것은 外物을 싸라 變하여 엇던 境遇를 만나면 엇던 要求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各人이 求하는 바 快樂과 幸福은 一致하지 못하며 卽 한 個人에 잇서서도 時間을 싸라 變할 수 잇다. 이리하여 道德은 一個의 正確한 標準을 가질 수 업다. 完成說로 말하면 感性의 要求로써 標準삼지 아니하니만치 快樂說보담 一武를 進하였다 할 수 잇스나 그러나 그 最後의 標準은 依然히 道德行爲의 發生한 結果에 잇슴으로 依然히 他律說이 되고 만다. 칸트에 依하면 眞正한 道德의 標準은 自我 以內에 두어야 한다. 感性은 眞正한 自我라 할 수 업다. 眞正한 自我는 理性이다. 道의 法則은 반듯이 內在的 理性本身으로부터 發生한 것이라야 道德의 基礎가 비로소 確固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게서 우리는 理性에 對하 야 多少 說明 할 必要가 있다. 여게 말하는 理性은 知識論에서 말한 理性과 勿論한 個의 것이지만 그 意味는 조금 다르다. 知識論의 理性은 感性和 悟性으로 더부러 並列하여 同等의 重要性을 가지지만 여게서 말하는 理性은 感性, 慾望, 衝動等 -總하여 曰感情-과 對立한 것이며 重要性도 後者보다 꽤 더 加重한 것이다. 知識論의 理性은 比較的 靜止的이오, 取納的임에 反하여 道德論의 理性은 能動的이오, 號令的이다. 前者는 純粹的 理性이오, 後者는 實踐的 理性이다. 前者는 論理學 上의 假定이오, 後者는 形而上學의 實在이다. 知識論에 잇서서는 感性和 悟性이 理性으로 더부러 同等한 自我이지만 道德論에 잇서서는 오즉 理性만이 眞正한 自我이오, 感性, 慾望, 衝動等은 모다 『거짓俄』로 看做된다. 여기서 理性은 本體界에 屬하는 것이오, 感性等은 現象界에 續하는 것이 된다. 前者를 칸트는 超越的 我라 하였고 後者를 現實的 我라 하였다. 칸트의 道德哲學의 根本的 意義는 超越的 我로써 現實的 我를 支配하게 함에 있다. 道德의 基礎를 그는 이곳에 두었다.

그러면 이 超越的 我는 現實的 我를 엇더케 支配하는가? 換言하면 理性은 엇더케 吾人을 支配하는가? 理性은 이와 가튼 命令으로서 吾人을 支配한다. -『너는 오즉 너 自身이 依하여 旅行하고 同時 또 普遍的 法則으로서 旅行되기를 願하는 그런 格律을 遵守하여 行動하라!』이런 命令을 칸트는 無上命令(或 絕對的 命令)이라 하나니 이난 엇던 利害的 打算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直接 理性 本身으로부터 發하는 命令임으로 理性自身 以外에 아무런 條件도 붓지 않는 卞답이다. 그러므로 이런 命令의 特點은 그 絕對性和 普遍性에 있다. 이것은 무릇 理性的 動物은 누구를 莫論하고 遵守치 안으면 안되는 法則이오, 決코 快樂說이나 完成說의 幸福이나 個人 完成을 目的으로 하는 道德法則과 가티 그 條件의 如何에 卞러 遵守하면 하고 말면 말수 있는 것이 아니다. 快樂說의 道德法則은 그것이 吾人의게 快樂을 줄 수 잇슬 卞는 遵守하고 그리치 못하는 卞는 遵守치 아니 할 수 잇지만 無上命令은 누구나 또 언제나 遵守하여야 하는 道德 法則이다. 例컨대 『거짓말 말어라!』하는 格律은 맛당히 遵守하여야 할 것이오, 그 結果의 利害 如何를 打算하여 遵守하거나 아니 할 것이 아니다. 칸트에 依하면 우리의 行爲는 맛당히 合理 與否를 무를 것이오, 利害 與否를 무를 것이 아니다. 맛티 董仲舒의 말한 바와 가티 『그 誼를 바로 삼고 그 利를 謀치 말며 그 道를 밝히고 그 功을 計치 말지니라』普通 이른 바 『善』은 某種의 目的을 僞한 善에 不過하니 이난 相對的 善이다. 그러나 道德의 法則이 命令한 義務는 그 本身이 卽 善이니 이난 絕對的 善이다.

絶對的 善은 그 自身이 卽 目的이오 다른 目的을 達하기 爲한 手段이 아니
다.